

# 부산시, 통합 LCC 본사 유치 추진... 시민단체 '반발'

(저비용항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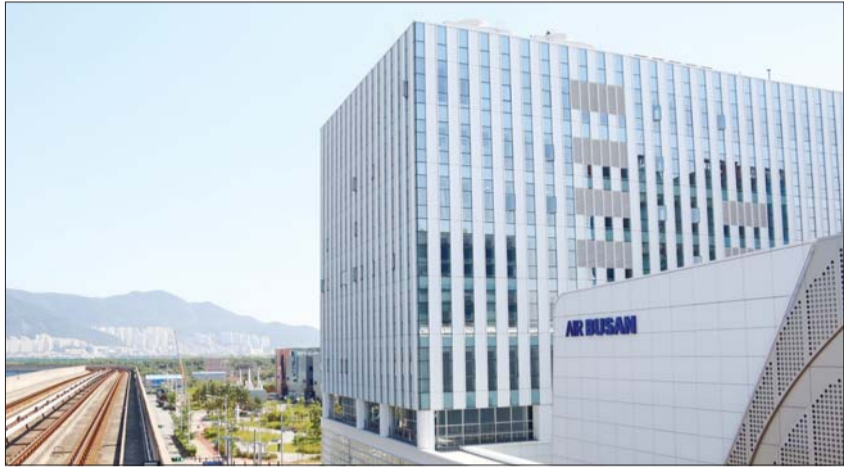
지역 거점 항공사 존치 총괄 TF 에어부산 독립법인 유치 등도 요구 시민단체 “에어부산, 부산이 키워 LCC 본사 들어와도 ‘껍데기’일 것”

부산시가 지역 거점항공사 존치 방법으로 기존 에어부산 분리매각 대신 통합 저비용항공사(LCC) 부산 본사 유치를 추진하면서 일부 시민단체가 반발에 나서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4일 ‘지역 거점 항공사 존치를 위한 총괄 TF’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한항공에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 혹은 에어부산 독립법인을 대한항공과 산업은행 측에 부산에 두는 방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통합 LCC 본사 유치를 통해 남부권 거점 항공사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은행과 국토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 결합을 발표 할 당시 통합 LCC 본사는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세컨더리 허브(Secondary HUB)’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현실화될 지는 미지수다.



에어부산 본사 사옥.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은 지난 2022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통합 LCC는 진에어 브랜드로 운영하며, 허브는 인천국제공항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부산시는 플랜B로 에어부산을 진에어와 동등한 자회사로 두는 ‘독립법인’ 형태를 제시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에 사회공헌 차원의 지역 살리기 명분도 만들어주고, 현재 에어부산 체제와 비슷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어부산의 분리매각 운동을 주도했던 이진후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상임대표는 부산시의 이같은 결정에 반발했다.

이 상임대표는 “에어부산은 지난 2007년 부산시와 부산상공계가 손잡고 만들고 부산시민들이 키운 부산회사”라면서 “통합 LCC 본사가 부산에 온다고 한들, 지금과 같이 에어부산처럼 부산을 중심으로 운영하지 않을 것이고 지역에서의 고용창출도 미비한 ‘껍데기 본사’가 부산에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한 에어부산 독립법인 형태도 그냥 단순히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을 대한항공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나 부산상공계 지분을 높여 실질적인 지역 지배력을 높여야 한다”며 “하지만 대한항공이 이를 받아들일 리 만무하기 때문에 반드시 에어부산이 분리매각을 해 완전한 지역의 거점항공사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에어부산은 지난 2007년에 설립됐으며, 부산시와 부산상공계를 중심으로 아시아나항공이 참여했다. 부산시와 부산상공계는 에어부산 지분 약 16%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은 41%다.

에어부산은 올해 3분기까지의 누적 실적이 매출액 7578억원, 영업이익 1265억원, 당기순이익 609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연말까지 매출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어부산 임직원의 70%가 부산, 울산, 경남 출신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기간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전체 일본인 관광객의 약 47%, 전체 중국인 관광객의 약 35%, 전체 대만인 관광객의 약 36%가 에어부산을 이용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고성군

#### 삼봉리에 해삼 종자 24만미 방류

경남 고성군은 어업인 소득 창출과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모색하기 위해 삼봉어촌계와 공동으로 해삼씨뿌림 사업을 추진해 삼산면 삼봉리 해역에 해삼 종자 24만미를 방류했다.

해삼은 바위틈이나 바닥에 서식하는 습성을 갖고 있어 특히 암반과 해조류가 많은 삼산면 삼봉리 해역이 정착생활을 하는 해양생물의 적지다.

방류된 종자의 크기는 1.0~7.0g이며 질병 검사 및 친모 유전자 검사를 정상적으로 마쳤다. 이후 2~3년이면 상품화가 가능해 어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성(경남)=이도식 기자

### 영광군

####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전남 영광군이 자원재활용 촉진과 쓰레기 처리 비용 현실화를 위해 17년 만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한다.

영광군은 그간 물가 상승을 이유로 종량제 봉투 가격을 동결해 왔으나 쓰레기 처리 비용 증가로 불가피하게 내년 1월1일 자로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은 ‘일반용 종량제 봉투’는 ‘5l(리터) 80원→100원’, ‘10리터 160원→200원’, ‘20리터 300원→400원’, ‘50리터 750원→1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10리터 100원→200원’, ‘20리터 200원→400원’, ‘30리터 300원→600원’으로 각각 가격이 오른다.

/영광(전남)=양수영 기자

## 안동시, 제3회 추경안 1조7980억 편성

제2회 대비 350억 늘어난 규모 일반회계 1.6조, 특별회계 1719억 지난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포함

경북 안동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조 7980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다. 이는 제2회 추경 대비 350억원(1.9%) 늘어난 규모이다. 일반회계는 341억원 증가한 1조 6261억원, 특별회계는 9억원 늘어난 1719억원이다.

이번 추경에는 지난 7월 호우피해 복구사업 56억원을 비롯해 국도비 보조사업 공모에 선정된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50억원, 경북애(愛)마루 올케어 센터 조성 43억원,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27억원, K-U시티 프로젝트 16억원이 포함됐다.

지난 10월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도 반영했다.

자체사업은 낙동공원조성 토지매입 27억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5억원 등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추가 편성했다.

올해 일반회계 기준 최종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3966억원(24.4%)으로 가장 크다.

이어 농림해양수산 2328억원(14.3%), 국토 및 지역개발 2267억원(13.9%), 문화 및 관광분야 1700억원(10.5%) 순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3회 추경은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국도비 변동분을 반영하고, 각종 사업 불용액 등을 최종 정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라고 말했다. /안동(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29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잔디밭에 앉아 가을 바람을 쐬고 있다. /뉴스

## 광주·전남, 올해 가을 역대 가장 더웠다

평균기온 18.9도... 평년비 2.9도 ↑

광주·전남의 올해 가을은 역대 ‘가장 더운 가을’로 기록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2024년 가을철 기후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 가을 광주·전남의 평균기온은 18.9도로 평년

(16도)보다 2.9도 높았다. 이는 기상 관측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1973년 이후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이다.

9월 폭염일수는 8.9일(평년 0.2일), 열대야일수는 8.7일(평년 0.3일)로 평년을 훌쩍 뛰어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신안군, 고령자 위해 마을 안길 정비

6년간 183억 투입해 150개 마을 정비

전남 신안군은 고령자의 이동 안전과 편의를 위한 마을 안길 정비를 추진한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39% 이상을 차지하는 신안군은 2018년부터 노후되고 파손된 마을안길 정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별 수요 조사를 거쳐 290개 마을, 250km 구간을 2019년부터 착수해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로 콘크리트로 형성돼 파손된 부위에 걸려 넘어지거나 보행보조차의 이동이 어려운 안길을 아스콘으로 덧

씌워 내구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가고 있다.

정비사업은 지금까지 6년 동안 총 183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150개 마을, 약 162km를 정비했다.

신안군이 추진하는 정비사업은 단순도로 정비를 떠나 넘어져 골절되면 쉽게 치료되지 않는 고령자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으며, 잦은 요철로 인한 이동불편과 소음 등에 의한 주민 피해를 해소하고자 장기적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사업은 고령의 주민들이 빈번히 이동하는 곳을 우선순위로 선정했다.

/신안(전남)=황세훈 기자 pinksea97@

## 경북교육청, 학교 공기청정기 1등급 외면

‘1등급 제품 우선구매 규정’ 위반

경북교육청이 교실의 공기청정기 임대 계약과 관련해 1등급 제품 우대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북교육청의 ‘2025년 학교 공기청정기 임차·유지 관리 용역 사전 안내’에 따르면 이번 입찰 대상은 도내 1427개 초·중·고에 3만2169대의 교실 공기청정기다.

이를 위한 예산은 122억여원이며 학교들은 내년 3월부터 3년간(30개월) 임대할 하게 된다. 월 임대료 기준 단가는 3년 전의 5만원에서 이번에는 3만8000원으로 낮아졌다.

지역교육청들은 이 달부터 내년 2

월까지 임대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게 된다. 올해 경북교육청은 제품의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기준을 ‘2등급 이상’으로 정했다. 충남교육청이 1등급으로 제한한 것과 대비된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2024년 7월 1일)을 위반한 것이다. 이 규정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올해도 지역 교육청들이 이 기준을 적용하면 경북 지역 학교들은 충남에 비해 더 많은 전기료를 내야 한다. /경북=김상복 기자

### 전남도

#### 겨울 테마 관광지 순환버스 운영

전남도 관광지 순환버스인 ‘남도한바퀴’가 전남의 겨울을 즐길 다양한 테마상품으로 관광객을 맞이한다.

전남을 찾는 관광객이 쉽고 편하게 도내 다양한 관광지를 즐기도록 광주 유스퀘어, KTX 광주송정역과 연계해 순환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계절별 테마상품과 전남·광주 공동상품, 축제 등 남도의 문화와 자연, 미식을 맛볼 다양한 코스를 9900원부터 시작하는 착한 가격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남=양수영 기자

### 부산시

#### 사하구서 ‘겨울 희망의 빛거리’

부산 사하구가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 곳곳을 화려한 빛으로 수놓는다.

사하구는 9일부터 구내 12곳에 ‘2024년 겨울 희망의 빛거리’를 선보인다.

점등식은 9일 대대포 동측해안에서 열리며, 이날을 시작으로 내년 2월28일까지 다대포해수욕장을 비롯한 주역 지역에서 빛장식 물들이 거리를 환하게 밝힌다.

아울러 하리단길에 조성된 빛거리는 내년 3월31일까지 운영된다. /부산=이도식 기자